

## “꿈에서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출향 잠녀 제주 출신 사할린 사할린 동포 고향 방문단 13일부터 3일 일정 입도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고향 “고맙다”…“제주도 차원의 지속·적극적 관심 아쉬워”

등록 : 2010년 07월 14일 (수) 18:36:54  
최종수정 : 2010년 07월 14일 (수) 18:36:5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재외제주도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회장 백영운)의 도움으로 출향 잠녀 및 제주출신 사할린 동포 고향 방문단이 지난 13일 3일간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던 제주를 70년만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고순복 할머니(79)의 목소리에 사할린에 묻고 온 아버지의 기억이 묻어난다. 고 할머니의 아버지는 지난 1974년 7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한 후인 지난 2002년 안산 고향 마을에 묻혔다.

1936년께 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아버지를 따라간 어머니의 뱃 속에 고 할머니가 있었다. 한인 마을 내 ‘가와다쿠’에는 고 할머니의 아버지 외에도 제주 출신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다. 현지 조선인학교에 7학년까지 다녔던 고 할머니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우리말을 한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주변 분들이 하던 제주말이 귀에 착 감겨오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다. “이렇게 와서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고 할머니의 말은 그렇게 잠시 멈춰섰다.

고 할머니는 제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회장 백명윤)의 출향잡녀 및 제주출신 사할린 동포 고향 방문 사업을 통해 지난 13일 3일 일정으로 제주에 왔다.

한-러시아 수교 이후인 지난 2000년 사할린 동포들의 영구 귀국 사업을 통해 안산고향마을에 터를 잡은 제주 출신 중 이번 방문에는 17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으니 고향 땅을 한번쯤은 밟아봤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88세인 현경철 할아버지와 김옥희 할머니(85) 부부와 백영기 할아버지(81)는 고향 제주를 태어나 처음 만났다.

“너무 고맙고 황홀하다” “이런 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는 말만 몇 번이고 되풀이할 뿐 고향에 빠져든 어르신들은 말을 아꼈다.

고 할머니는 “아버지가 제주서 선생질을 했다는 말도 했었다”며 “위에 알고 아래를 알아야 한다며 내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금은 뻣뻣한 일정에도 고 할머니는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대신해 눈에 가슴에 제주를 담아가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

“정 많고 살피주는 제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고 할머니는 “어렸을 때 들었던 제주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발전한 고향의 모습에 들뜬 것도 잠시, 고향을 찾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기억을 더듬어 고향 마을을 찾아봤지만 친지며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는 등 과거를 확인하기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 속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6년전 사업 중단으로 제주를 찾지 못했던 출향 잡녀 37명이 함께 했다.

방문사업을 기획한 백명윤 회장은 “안산과 경남제주도민회에서 만난 사할린 출신 제주도민들과 출향 잡녀들이 꼭 한 번 고향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듣고 오래 준비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왜 이제야 이런 기회를 마련했나 오히려 죄송스러워졌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 역시 다 제주도민인 만큼 제주도가 더 많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잊혀진 시간들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